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8228.70 (+181.19)	코스닥 1133.13 (-39.39)
금리 (연율) 3.711 (+0.047)	환율 (원/달러) 1502.10 (-2.20)

# metro® 경제

“예금보다 주식”  
8000피가 바꾼  
韓 자산배분 공식  
04

KOSPI  
8,228.70  
Hana Bank  
▲ 181.19 (2.25%)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 노사갈등 일단은 봉합 주주단체 法대응 예고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조인식 투표 찬성률 74% 합의안 ‘가결’ 노조간 표심 극명 ‘균열’의 조짐 DS 영업익 10.5% 성과급 신설 DS 최대 6억, DX 600만원 수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사내 노조간 표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어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 기흥 사업장 내 ‘The UniverSE’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간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여명구·김형로 부사장과 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최승호 위원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산노)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이날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 기준 세전 최대 6억원의 자사주 보상이 예상되는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수준으로 부문 간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한다.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3년 분할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2026~2028년은 DS부문 영업이익 연 200조원, 2029~2035년은 연 100조원을 달성해야만 지급된다.

합의안에 대해 노조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초기업노조는 80.6%가 찬성한 반면 전산노는 찬성률이 21%에 그쳤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부문 중심의 전산노간 표심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사업부 간 내부 균열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에 노태문 DX부문장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내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이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협력업체 동반 성장, 산업재해기금 조성, AI 인재 육성 등 상생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명구 부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최승호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주단체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주주 결의 없이 영업 이익 연동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구남영·차현정 기자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 GC녹십자, 美 관계사 매각 2.2조 ‘잭팟’

**美 빅파마 ‘일라이 일리’ 백신 확대 ‘큐레보’서 위탁생산… 로열티 확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제약 기업의 신약 개발이 흥분을 터뜨렸다. 미국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백신 영역으로 차세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GC녹십자의 미국 관계사 큐레보를 낙점하면서다.

이번 큐레보 매각으로 GC녹십자는 당장 오는 8월에만 3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쥐게 돼 하반기 수익 성장에 판란불을 켜다. 특히 자산을 통째로 넘기는 단순 투자 회수와 달리, 큐레보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위탁생산(CMO)과 로열티를 확보하며 실속을 챙겼다. 플랫폼 기술만 넘겨주는 껍데기 매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마일스톤 유입’과 ‘릴리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를 결합해 K백신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일라이 릴리에 GC녹십자

미국 관계사 ‘큐레보’ 발행 주식 전량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총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릴리는 큐레보를 인수하고 큐레보의 대량포진 백신 후보물질 ‘CRV-101(성분명: 아메조스비테인)’의 글로벌 권리를 독점한다.

이와 관련 현재 큐레보 지분 20.3%를 보유하고 있는 GC녹십자는 거래 종결과 동시에 지분율에 비례한 확정 계약금을 받는다. 올해 8월 수령하는 확정 계약금 규모는 약 3066억원이다. 이중 2847억원은 바로 수령하며 219억은 추가 조건 충족 후 수령한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으로 GC녹십자는 재무 구조 개선 및 실적 개선 기반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후속 임상 및 상업화 문턱을 넘을 때마다 마일스톤 분배금만 약 1533억원 수준이다.

생산 기지를 통한 캐시카우도 창출한다. GC녹십자는 지난해 10월 큐레보와 맺은 CRV-101 상업화 이후 제품 공급을 위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이번 릴리

매각 후에도 이행한다. 상업 물량 일부의 완제계약품(DP) 공정을 국내 충북 오창 공장에서 맡는다.

한편, 릴리는 큐레보를 포함해 림마테크 바이오로지스, 백신 컴퍼니 등 백신 전문 기업 3곳을 총 38억3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연해 인수한다. 릴리는 천문학적 자금을 백신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미래 의료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항생제 내성 등으로 인한 발병에 앞서 질병에 근본적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바이오의약품 평가를 담당했던 파더 마크스 박사를 감염병 책임자로 영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RV-101의 경우에도 우수한 임상 데이터가 경쟁력에 뒷받침된다. CRV-101은 면역증강제를 활용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대량포진 백신 후보물질이다. **<4면에 계속>**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

##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삼성전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으로써 최종 타결됐습니다.

국민과 주주, 고객,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정부의 현신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하여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회사의 이런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해나가겠습니다.

삼성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일동